



한국어항협회 제40차 이사회 개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 5일(화)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어촌·어항법의 제정에 따른 협회의 향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오거돈 장관, 일본 선진 어항 시찰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월 12일 일본에서 어촌관광 및 어업생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어항인 히마카항과 토요하마항을 시찰했다. 이날 시찰에서는 일본 수산청 관계자와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 사카이 스나오 회장이 나와 오거돈 장관 일행을 영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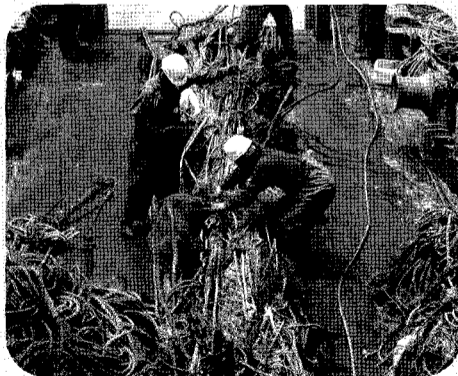
격포항 다기능 어항 기본설계 자문회의 열려

지난 7월 15일 한국어항협회 회의실에서는 격포항 다기능어항 기본설계 자문회의가 열렸다.

무녀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수거사업 준공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 시행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해오던 '무녀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수거사업을 지난 7월 22일 준공했다. 총 사업비 약 15억7천6백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전체 사업면적 1,117ha에 이르는 수역에서 계획물량 952톤을 120% 초과한 1,146톤을 수거하였다.

이 공사는 지난 3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착공,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군산수협과 인근 수역 어민이 무녀도 주변해역 사업수역의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해 와 '관리도' 인근 해역까지 사업



구역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인근 개야도, 연도, 비안도 어업인들도 해양폐기물수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어 협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협회와 어업인 간의 협조 체제가 긴밀해져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 추진 중 나타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건의는 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해양폐기물처리 및 어업인 계도 사업이 결실을 보이는 사례로 풀이 된다.